

한마음 한몸

2015.03
통권 25호

한마음한몸
운동본부
One-Body One-Spirit

특집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자살예방센터



© OBOS

COVER STORY



© OBOS

성체성사의 마음으로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한마음한몸 자살예방센터의 센터장 손애경 마리잔느 수녀와 직원들 모습. 오늘도 좌절과 마음의 상처를 지닌 이들의 든든한 생명지킴이 활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통권 25호 / 봄

한마음한몸

발행인 유경춘

발행처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발행일 2015년 3월

디자인 slowalk

주소변경 및 문의 | 후원관리팀

T 02 727 2288 E obos@catholic.or.kr

CONTENTS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03. 한마음한몸 지금 여기 _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자살예방센터

⊕ 테마스페셜

04. SPECIAL STORY ① _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자살예방 센터를 가다

06. SPECIAL STORY ② _ 자살 유가족을 위한 '해바라기 슬픔 돌봄 모임'

08. SPECIAL STORY ③ _ 자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이야기

⊕ 희망과 만나다

12. 현장을 가다 _ 우리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14. OBOS Family _ OBOS 덕분에 당당한 직업인이 되었어요

15. 희망공작소 _ 부룬디 학교짓기 프로젝트 참여 감사

16. OBOS Hope Maker ① _ 나를 나로서 온전히 받아들이는 시간

17. OBOS Hope Maker ② _ 반티에이 뿌리업, 다시 만나러 갑니다

⊕ 공감하는 세상

18. 캠페인 _ 카드 포인트 기부 방법

19. 나눔가게·나눔기업 _ 레인보우통신 도입점

20. 생애첫기부

22. NEWS + _ OBOS NEWS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한마음한몸**은 후원자 분들에게 무료로 배포됩니다. **한마음한몸**의 내용은 인터넷(www.obos.or.kr)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소식지의 저작권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있습니다.

Copyright © ONE BODY ONE SPIRIT. all rights reserved

성체성사의 마음으로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자살예방센터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는 사회에 만연한 자살문제에 대해 예방활동을 펼치기 위해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2010년 3월 설립하였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서 이어가고 있는 생명운동의 하나로서, 센터는 자살문제로 힘들어 하는 이웃들의 생명친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 캠페인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Vision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희망과 사랑으로 소통하는 세상을 구현한다.

Mission

01. 교회 가운데 생명 영성을 확산시키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02. 자살 예방을 위한 실천적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03. 죽음의 위기에 처한 이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그들의 어려움에 함께 한다.
04. 자살 유가족들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한다.

한마음한몸 자살예방센터 현황

단체명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자살예방센터
창립	2010. 3
위치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422호
소속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센터장	손애경 마리잔느 수녀
직원	직원 3인(사회복지사 1인,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인, 상담심리사 1인)

故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설립하시고 초대 이사장을 지내셨던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1989년 제44차 서울 세계성체대회를 준비하면서 생명존중과 나눔실천이라는 대회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현혈, 현안운동을 벌이며 교회와 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현재까지 국내를 비롯한 지구촌 50여 개국을 대상으로 나눔운동과 생명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천주교 NGO(비정부기구)입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자살예방 센터를 가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자살예방센터의 하루

2015년 3월, 어느 날



09:30 아침기도를 마치고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이인희 (막시마) 씨는 개인상담을 통해 오늘 만나게 될 내담자들을 확인하며 지난 주 상담했던 내용들을 읽어본다. 그때 전화벨이 울린다. 수화기 너머 어렵게 힘든 마음을 꺼내놓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센터 방문을 위한 시간 약속을 잡는다.

10:30 죽음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자살 위험 대상자들을 전문기관과 연결해주는 게이트키퍼(Gatekeeper), 곧 생명사랑 지킴이 게이트키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금미(프란치스카) 씨는 많은 신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11:00 센터 홍보와 캠페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류정희(에밀리아나) 씨는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유튜브에 센터의 다양한 소식들을 올리고, 일반인들이 좀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자살예방방법을 기획하기 위해 센터장님, 팀원들과 함께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한다.

14:00 센터장인 손애경(마리잔느) 수녀님은 외출준비를 한다. 오늘은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언제나처럼 오늘도 강의의 주제는 생명존중에 관한 것이다. '생명은 하느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 '관심과 사랑으로 소통과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16:00 서울지역 한 본당의 신부님이 전화를 걸어왔다. 본당에서 신자들과 함께 자살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개최하고 싶다고 하신다. 류정희(에밀리아나) 씨가 전화를 통해 일차로 안내해 드린 후, 본당 지역 및 신자들의 사정에 맞는 캠페인을 구상해 안내 자료를 제작하고 이를 우편으로 보내드린다. 자료를 검토한 신부님께서 전 신자들을 대상으로 센터와 함께 캠페인을 펼치게 될 것이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자살예방센터가 하는 일

- 1. 자살예방교육** |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생명존중과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특히 자살의 징후는 다르지만, 징후를 표현하는 대상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를 알아차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과 연계를 위한 게이트키퍼(Gatekeeper)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이 우리의 무관심 속에 하루하루 사라져 가고 있는 요즘, 전문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활동가와 강사들도 양성하여 전국에서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 2. 본당과 학교, 거리에서 펼치는 자살예방 캠페인** | 자살예방활동의 필요성을 알리고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전국 기관, 천주교 관련단체, 교구, 본당 등에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40~50대 중년 자살 위기자에 초점을 맞춰 '아빠, 힘내세요' 캠페인을 각 본당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자신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는 '마음달력 캠페인'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 3. 위로와 치유를 위한 상담** | 좌절과 마음의 상처로 인한 고통은 홀로 이겨내기 보다 여럿이 함께하면서 대안을 찾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센터는 자살의 위기에 처했거나, 가까운 이의 죽음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한 상담과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4. 자살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연락주세요**

-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전화상담 | 1599-3079 (월~금, 10시~17시)
면접상담 | 02.318.3079 (월~금, 10시~16시)
 - 자살위기 전화상담 | 1577-0199 (24시간 운영)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24시간 운영)
 - 생명의 친구들 사이버상담 | www.counseling.or.kr
- ① 대상 : 자살생각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② 상담비 무료 / 개인상담의 경우 방문하여 초기면접 후 상담결정 (주1회 50분)
- ※ 자살생각과 관련해 '즉시 위기상담'이 필요하시면 위기상담전화 1577-0199(24시간 운영)를 이용해 주시고, 면접상담을 통한 지속적인 만남을 원하시면 센터 02-318-3079로 문의해 주세요.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 www.3079.or.kr T 02.318.3079 F 02.2265.2955
www.facebook.com/obos3079 www.youtube.com/obos3079



자살유가족을 위한 ‘해바라기 슬픔 돌봄 모임’

한마음한몸 자살예방센터의 ‘해바라기 슬픔 돌봄 모임’은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가 2013년부터 자살유가족을 위해 운영하는 개인상담 및 자조모임입니다. 소중한 사람을 사별로 잃어버린 이들의 슬픔을 극복하게 도움으로써, 사별의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고 본연의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모임입니다. 특히, 자살로 가족을 잃은 이들이 모임을 통해 각자의 고립감을 서로의 유대감으로 변화하는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모님을 잃은 자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 배우자를 떠나보낸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유가족들이 슬픔 돌봄 모임에서 함께 아픔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2014년에는 약 80명이 참여했습니다.

해바라기 슬픔 돌봄 모임의 참여자들은 교회 안에 자신의 아픔에 대해 나눌 수 있는 위로의 장소가 있다는 것에 큰 위안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유가족들은 모임을 통해 세상을 다시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마음을 표현하며 때로는 슬퍼하며 어린아이처럼 울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며 추억을 되살리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법을 새로이 배우게 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해바라기 슬픔 돌봄 모임’으로 가는 길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스스로 자신의 복잡하고 힘든 마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

한 때 자신의 아픔을 들여다보며 같은 아픔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나아간다면 한 걸 부드럽게 천천히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 내 마음 안의 슬픔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돌보는 과정은 떠나간 사람과 남겨진 사람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살아가게 될 희망을 찾고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살아가게 될 희망을 찾고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서로의 목소리를 들어줄 ‘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센터를 찾게 된 자살 유가족은 우선 ‘개인면접상담’을 통해 외상의 아픔을 다룬 후 ‘해바라기 슬픔 돌봄 모임’이라는 6회기 자조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모임에서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참아내며, 고인에 대한 그리움으로 채워지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가슴이 꽉 막혀서 호흡이 곤란하다’, ‘마지막 임종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많이 아프다’, ‘그 사람이 지금 내 곁에 있었으면...’, ‘보고 싶고 미안하다’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들(사별 가족들)은 서로의 아픔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슬픔을 표현하고 위로를 주고 받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함께 보듬어가며 고인을 애도하고 남아있는 시간을 바라보며 ‘후회 없는 삶을 살자’며 모임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픔을 들어줄 자신보다 더 큰 서로의 ‘귀’가 있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같은 슬픔을 경험한 우리, 서로를 위로하며 힘을 얻습니다.

슬픔을 넘어 수용으로 가는 길, 그 길 위에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슬픔이 지나갈 수 있도록, 서로를 토닥여 주는 해바라기 슬픔 돌봄 모임에 초대합니다.

Q. 왜 ‘해바라기’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지요?

A. 해바라기의 꽃말은 ‘기다림’으로 해바라기 꽃은 해가 움직이는 대로 고개를 돌리면서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현실에서 더 이상 고인을 볼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고인에 대한 추억이 내 기억 속에서 활짝 피어나기를 바라는 ‘희망’에서 해바라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Q. ‘해바라기 사별가족 모임’의 세부 프로그램을 알 수 있을까요?

A. 총 6회기의 자조모임을 갖게 됩니다.
매회 모임 전 <상실수업노트>를 작성하고 자신들의 일상을 용기 있게 보여주고 이를 나누게 됩니다. 또 고인의 사진이나 유품을 활용한 추억 나누기, 감정표를 활용한 감정 나누기, 고인에게 편지쓰기 등의 활동을 통해, 힘든 시간 속에서도 자발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서로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Q. 참여 대상 및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 참여대상 | 자살로 가족 및 소중한 이를 잃고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 참가비 | 무료
· 개인상담 및 자조모임 신청 | 02.318.3079



회기	내용
1	해바라기 슬픔돌봄 모임 안내 및 유족의 심리
2	[슬픔아, 안녕] 심리적 외상의 이해와 치유
3	[슬픔 곁에 머물기 01] 영화와 함께 하는 ‘내적여정’
4	[슬픔 곁에 머물기 02] 감정을 표현하고 다루기
5	[지금 - 여기에] 함께 가는 여정
6	[터널 건너기] 사별가족 미사

자살로 배우자를 잃은 유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과중한 업무와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주면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힘겨운 상태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생전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듣던 남편은 아이들에게는 좋은 아빠, 그녀에게도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온 집에서 남편의 시신을 발견하였습니다. 큰 충격에 빠졌고, 그 누구에게도 남편이 자살로 세상에 없다는 것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없다는 절망감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빠져 있던 그녀는 한편으로는 또 앞으로의 생계와 자녀를 돌보아야 한다는 책임감에 힘겨웠습니다. 그렇게 지내다보니 가슴 두근거림, 호흡곤란, 불면증과 같은 이상 증상이 오기 시작했고, 자신도 남편을 따라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위험한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때 지인의 도움으로 지난해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자살예방 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센터에서 그녀는 남편을 잃은 깊은 슬픔을 온전히 느끼며 쌓여 있던 눈물과 슬픔을 표현하게 되었고, 남편을 발견할 당시 받았던 외상적 충격에서도 서서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며 상실을 받아들이면서 자녀들과도 아빠를 잃은 슬픔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신이 느끼는 분노와 절망, 혼란을 보여줘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아이들도 자신의 감정이 정상적인 것이며 괜찮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아이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또 살아가는 의미를 천천히 발견해 나가며 어려움에서 점차 회복되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밀을 지키느라 아픔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 남편을 자살로 잃고 혼란된 상태에 찾아오신 자살유가족

자살 유가족
사례 01

자살로 부모를 잃은 유가족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우울증을 지켜봐야 했던 조○○씨는 어머니의 자살을 알게 된 후 혼란과 절망에 빠지게 되었고, 삶이 무기력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고통이 끝났다는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신의 감정조차 다시 죄책감으로 돌아오고 자신 또한 우울증을 앓다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공포를 지닌 채 센터를 찾았습니다.

상담에 참여하며, 조○○씨는 여러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에게 자신이 중요한 존재였는지 회의하기도 하고, 또 아픈 어머니에게 자신이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무력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살아생전에 어머니에 대한 화를 표현할 수 없어, 언제나 자신에게 그 화를 화살처럼 쏘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우울과 자살이 마치 자신의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다던 조○○씨는 해바라기 슬픔 돌봄 모임에서 자신의 아픈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함께 참여한 이들은 슬픈 마음을 서로 토닥여 주었습니다. 이후, 조○○씨는 늦었지만 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다가올 자신의 삶을 일으키며 서서히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말했습니다. “제 안의 복잡한 감정을 꺼내놓을 수 있어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라고.

제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껴져요.

— 32살 조○○(여성)의 이야기

자살 유가족
사례 02

자살이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OECD국가 중 최근 10년간 자살률 1위라는 믿기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14,427명이 자살하고 하루에 39.5명이 자살을 선택하여 OECD국가 중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라는 불명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살의 더 큰 문제는, 한 사람이 자살하면 자살자 주변의 평균 7명이 심각한 충격과 고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모든 사별은 아픔이지만 특히, 자살은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중 하나입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홍강의 명예교수는 "한 사람이 자살하면 가족들과 지인들은 아픔의 순간에 놓이게 된다"며 "그

들은 다시 자살할 가능성이 높은(high-risk) 그룹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이의 자살 자체가 크나큰 충격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가족의 자살했다는 비밀을 지키느라 아픔을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더해갑니다. 여기에 이들 가족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해 무관심한 사회도 다시 자살로 이어질지 모르는 위험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다뤄져야 합니다.

유가족들은 이중삼중의 죄책감을 갖습니다. 가족을 지키지 못한 자책감과 교회 안팎의 냉랭한 시각으로 인해 자살을 숨기고, 사회와 담을 쌓고, 또 교회 안에서는 냉담하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수치와 따가운 시선 등 비난의 꼬리표가 그들의 치유과정을 더디게 하는 것입니다. 유가족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돕기 위해서는 우선, 유가족이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는 배려와 위로의 마음을 담아 그들이 하는 말을 받아들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차별에 찬 시선과 괜한 오해는 회복의 힘을 저해시키게 됩니다. 유대관계를 통해 소중한 사람을 잃은 아픔과 상처를 함께 끌어안고, 지탱해 주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살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살유가족들은 많은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으며 사회적 오명과 죄책감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별슬픔의 고통을 치유하기까지의 과정이 길고 어렵지만, 이를 위한 치료와 모임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살유가족의 경우, 슬픔에 빠진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 알아보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아픔을 공유한 모임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 슬픔을 나누는 것은 슬픔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미래의 삶을 계획하고 다시 희망을 꿈꿀 수 있습니다. ㊦

내 마음 속 나의 슬픔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사별슬픔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슬픔이 진행되는 과정을 **충격과 부정 ▶ 분노 ▶ 타협 ▶ 절망 ▶ 수용** 다섯 단계로 말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복잡하고 다양하듯 슬픔 역시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각 단계가 순서대로 지나가게 될 슬픔의 정거장은 아니며 모두가 이 다섯 단계를 전부 겪거나 정해진 순서대로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실로 인한 '슬픔의 영역'을 보다 잘 이해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단계들을 소개합니다.

슬픔에서 수용으로 가는 5단계 과정

슬픔의 첫 번째 단계 | 상실에서 도저히 헤어지지 못하는 상태로서, 인생이 무의미해지고 감당할 수 없게 느껴지는 '충격과 부정'의 단계입니다.

슬픔의 두 번째 단계 | 상실을 막을 수 없었던 상황에 화가 나는 '분노'의 단계입니다.

슬픔의 세 번째 단계 | 사랑한 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기며 신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타협'을 시도합니다.

슬픔의 네 번째 단계 | 하지만 결국엔 사랑한 이가 가버린 슬픈 현실이 남습니다. 타협 단계가 지나면 '절망'의 단계로 이동하며 강력한 슬픔 속에 혼자 남겨진 채로 삶에 소외되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찾아옵니다.

슬픔의 다섯 번째 단계 | 이렇게 힘든 과정을 반복하며 사랑한 이가 실제로 떠나버린 현실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단계가 찾아옵니다.

자살 유가족의 확인

이제 내가 잃어버린 사람은 그 어떤 방식으로든 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만 빼고요. 내가 그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건 바로 그가 남긴 죽음이 내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유산이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가 가져다 준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야하겠지요. 또 그가 남긴 어려움을 최소화해야겠지요. 우리의 삶을 힘들게하는 그 어떤 것들을 이겨내면서 말입니다. 어떻게요?

"삶을 즐기으로써", "미소를 짓고 웃음으로써", "슬픔과 자책에 빠져 있지 않음으로써", "긍정적인 새로운 영역으로 삶의 새로운 발걸음을 떼면서", "나와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그리고 그의 실수가 슬픔을 계속 만들어내지 않도록 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도 슬픔이 계속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매일 나는 내가 잃어버린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나는 매일 이렇게 해보자고, 일상의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서도 그가 가져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나에게 부탁하면서, 내가 사랑한 사람의 모습을 그려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네, 나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 제프리 잭슨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
하느님은 너희의 생명이다.

[신명 30,19,20]

입을 닫고 있는 것은, 단순히 침묵하는 것이 아니다.
비밀스러운 슬픔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말할 수 없는 슬픔은, 더욱 더 참을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된다.

— 프란세스 · 리도레이 · 하브아 가르

우리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박재출 | 국제협력팀장

2015년 새해가 밝은지도 어느덧 3월이 되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국내외적으로 에볼라 바이러스, 테러, 전쟁, 재해 등 많은 일들이 국가, 장소, 지역을 넘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남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되어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던 일들이 지구촌 안에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세상이 점점 가까워지고 다원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대중매체를 통해서 듣는 소식들은 좋은 일도 있지만 대부분은 힘들고 안타까운 사연들이다. 점차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지고 있고 기술은 발전되어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것 같지는 않다.

2000년 9월 세계 187개국 정상들과 정부 대표들이 새로운 천 년에 인류가 맞게 될 미래에 대해 지난 천년간 해결하

지 못하고 남겨진 각종 개발의 난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결의를 하였다. 국제사회는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15년까지 전 인류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결의를 하였다.

예를 들어 빈곤과 기아로 고통을 받는 이들, 초등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 기후변화나 환경파괴로부터 피해를 입는 이들, 각종 질병이나 아이를 낳다가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할아버지, 아버지가 보릿고개를 겪었고, 또 6,25전쟁 이후 굶주림과 질병으로 많은 이들이 죽거나 힘든 상황을 지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스스로의 힘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역량을 통해 빈곤이나 질병으로 극한의 위기를 맞는 경우는 드물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견디기 힘든 위기 속에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 이하 17개 목표는 2014년 12월 Post-2015에 대한 종합보고서(Synthesis Report)의 발표내용으로 2015년 9월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최종목표가 결정되고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도 과거에 정부, 국제기구, 기업, 시민사회단체, 지역공동체들을 통해 원조를 받았었기에 가능했다. 이제 우리나라는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변모하였고, 국제 사회 안에서 우리도 인류애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2000년도에 결의된 새천년개발목표로 인해 국제사회는 빈곤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일으켰고, 그 결과 절대빈곤인구와 아동사망률 감소, 그리고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등에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는 최빈국과 개발도상국의 극심한 빈곤문제의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었고 모든 국가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목표들 간의 유기적인 연결 부족 등 문제도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제사회는 2015년까지 결의한 8개의 목

표를 이어가기 위해 지난 2012년도부터 새로운 개발목표들을 만들어 오고 있다. 우리 인류의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이루어 가기 위한 목표들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의제들이 UN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인류 공동의 번영과 행복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유엔, 각국 정부, 국제기구,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인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

2016년이 되면 새로운 목표들이 세워질 것이다. 분명 그 목표들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기에 밝은 미래를 꿈꾸는 우리의 권리이며 동시에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들려오는 소식들이 사회에 희망이 되는 좋은 이야기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를 쫓기보다 사람이 중심에 있고 모든 피조물과 화합하여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



사진출처: UN Sustainable Development Knowledge Platform

“직업교육훈련을 도와준 PCSW&HR과 OBOS 덕분에 당당한 직업인이 되었어요”



01. 셰나즈 베굼(Shehnaz Begum)



주소: 샤크, 라왈라콧(Chak, Rawalakot)

셰나즈 베굼 씨는 라왈라콧(Rawalakot)에서 7킬로미터 떨어진 샤크(Chak) 마을에 산다. 그녀는 가정불화로 이혼 후, 어머니는 단둥이 살게 되었다. 어려운 집안 살림에 주변에 도움을 일정기간 받았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아 둘은 직접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곳을 물색하던 중 PCSW&HR과 OBOS가 마을 인근인 샬 담니(Char Dhamni)에 직업교육훈련센터를 지어 오픈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14년 1월, 그녀는 그곳에 입학신청을 하고 직업교육훈련을 받기 시작했다.

샬 담니 직업교육훈련센터에서 농작물 경작 이론과 실기교육을 받은 그녀는 어머니 소유의 약간의 땅(약 500m²)에 농업기술을 적용해 채소류를 수확하게 되었다. 이를 시장에 팔아 2014년 말에는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다. 또한 바느질 직업훈련 덕에 주위 여성과 아이들의 옷을 바느질하여 생활비에 보탬 수 있게 되었다.

02. 사이마(Saima)



주소: 카이갈라, 라왈라콧
(Khaigala, Rawalakot)

사이마 씨는 카이갈라(Khaigala) 마을에 살고 있다. 사이마의 아버지는 혼자서 가족의 생계를 힘겹게 책임지고 있어서 지금은 고사하고 거의 하루 벌여 하루 먹는 정도였다. 사이마 씨는 대학 졸업 후, PCSW&HR과 OBOS가 2014년 카이말라에 설립한 컴퓨터 교육센터훈련과정에 지원해 2014년 6월 드디어 5개월 과정을 수료했다. 수업에서 그녀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코렐 드로우, 인페이지, 인터넷 등을 학습했다. 훈련을 마친 그녀는 얼마간의 구직 활동의 성과로 카슈미르 노블 아카데미(Kashmir Nobel Academy)에서 컴퓨터 교사 일자리를 구했다. 요즘 그녀는 아버지를 도와 가족을 부양하면서 동시에 박사과정 준비를 하고 있다.

03. 아미나 비비(Amina Bibi)



주소: 코타와 갈라, 라왈라콧
(Chotta Galla, Rawalakot)

아미나 비비 씨는 라왈라콧(Rawalakot), 코타와 갈라(Chotta Galla) 마을에 살고 있다. 그녀는 대학 졸업 후 그녀의 형제들처럼 직장을 구하려 노력했으나 가는 곳마다 컴퓨터 기술을 요구해 취업이 어려웠다.

2014년, 그녀는 코타와 갈라에 위치한 컴퓨터 훈련센터에 입학할 신청, 5개월의 훈련과정에 참여했다. 거기서 그녀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액세스, 인페이지, 인터넷 등을 배우고, 이후 파이오니아 에듀케이션 학원에서 컴퓨터 훈련 수료증을 인정받아 컴퓨터 교사로 취업하게 되었다.

그녀는 PCSW&HR과 OBOS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이 교육 사업을 인근지역의 여성 뿐 아니라, 라왈라콧 내 다른 지역에도 확장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

※한마음한몸운동본부(OBOS)는 파키스탄 현지 단체인 PCSW&HR과 여성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사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룬디 학교짓기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 만에 지는 꽃이 아닌
영원히 재생되는
씨앗을 선물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후원금이 벽돌, 모래, 시멘트, 물이 되어 부룬디에 초등학교 교실 6개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중장비가 없어 비록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가고 있지만, 마을 주민 모두가 힘을 모아 학교의 모습이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부룬디 학교짓기 프로젝트는 이제 첫 걸음을 내딛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교실이 완공되면 2015년 12월, 2차 부룬디 학교짓기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들이 사용할 화장실, 서재, 교무실을 짓겠습니다. 부룬디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뛰어놀 그 날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2014.12.21~2015.02.28 2달 2주간 진행된 부룬디 학교 짓기 프로젝트에 591명이 참여해주셔서 136,942,187원이 모였습니다. 이 소중한 후원금은 부룬디 아이들에게 교실 6개를 짓는데 잘 전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1. 첫 행사 이후, 제2회 서울대교구 15지구 영등포, 금천 청년들이
성가 축제 '메아리' 티켓 판매 수익금 기부

★ 부룬디 학교 짓기를 위한 첫 행사 | 수익금 전액 기부
★ 제 2회 행사 수익금 | 후원금 1,450,000원

02. 서울대교구 11지구 거의 모든 성당에서 대림시기 때의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공동체 미사 봉헌금 기부

★ 후원금 1,201,300원 / 일시: 2014년 대림시기

03. 영양성도 유치원 졸업반 (온유반, 원아 9명) 아동들이 수학여행
에서 쓰고 남은 경비 잔액 기부

★ 후원금 184,200원 / 일시: 2015년 1월 30일

04. 솔샘 유치원 160명의 원아들의 바자회 수익금 전액 기부

★ 후원금 1,627,000원 / 일시: 2015년 2월 12일

05. 인천 박문초등학교 '박문 오케스트라'가 2014년 정기연주회
수익금 기부

★ 후원금 8,192,640원 / 일시: 2014년 12월 12일

06. 명동성당 초등부 주일학교 기쁨잔치 수익금 기부

★ 후원금 150,000원 / 일시: 2014년 11월 23일

07. 정릉4동 성당 초등부 주일학교의 전 학년 학생들이 알뜰시장을
개최해 얻은 수익금 기부

★ 후원금 83,170원

08. 하계동 성당 초등부 주일학교 학생들이 대림기간 동안 저금통
에 모은 동전을 기부

★ 후원금 257,630원

09. 목동성당 청년연합회에서 2014년 성탄절 미사 후 우동, 오뎅,
막걸리, 파전을 마련해 신자들에게 판매한 수익금 기부

★ 후원금 1,000,000원

10. 계성여자고등학교 2학년7반 학생들이 일 년 동안 모은 지각
비를 기부

★ 후원금 60,000원



© OBOS



© OBOS



© OBOS



© OBOS

나를 나로서 온전히 받아들이는 시간



2015년 2월 16일 | 정승아 테레지아

어느 날인가, 폐제 기도를 할 때 모두에게 고백한 기억이 납니다. 인도 콜카타 사랑의 선교 수녀회에서 자원 활동을 한 어느 여성의 후기에 대해, 출국 전 저는 매우 냉소적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나는 내가 그저 나로서 받아들여졌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가 아니라.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I felt accepted for who I was, not for what I could do.)” 저는 그녀의 아주 솔직했던 이 문장을 읽으면서 무엇이 그리도 불편했을까요. 부끄럽지만 그때 저는 아마도, ‘당신보다 약한 누군가를 앞에 두고 나니 당신의 조건과 잠재력이 필요 없어진 것 같더니, 그래서 마음이 그리도 편안하더니’ 하는 다소 웅졸한 뿌루통함을 그녀의 글을 향해 쏘아 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말은 띠앗누리 활동을 하고 난 제게도 무척 잘 들어맞습니다. 감뽕꼬의 박진혁 신부님, 짜라난 수녀님, 쓰레이맥 자매님, 유치원 선생님, 유치원 어린이들, 마을 분들, 그리고 단원들까지도, 제가 띠앗누리 활동에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가늠하시면서 저를 받아들이셨더라면, 아마도 저는 그저 까탈스럽고 불편한 참가자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한 번에 여러 개의 벽돌을 옮기지도 못하며, 쉽게 피로하고, 하루의 작업을 마친 단원들의 잠시 휴식에 느긋하게 동참할 줄 아는 사람도 아닌데다가, 결정적으로 어린이들에게 스며들듯 섞여 들어 그들과 함께 놀아 줄 줄 모르는 사람이 저였던 것일요. 그런데도 저는 나다리와 까

타나라는 두 학생에게서 예쁜 팔찌와 머리핀, 그리고 그들이 정성껏 적은 편지를 받기도 했고, 매일 단원들에게서 수고했다는 인사를 들었으며, 처음 뵈는 마을 분들께 서툰 발음으로 ‘쭈리쭈어’라고 인사하면 그 분들께 웃음과 함께 답을 들었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먼저 제 손을 꼭 움켜쥐어 주기도 했고, 폐제 기도 때에는 함께 둘러앉은 분들의 진심 어린 기도들을 함께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고 난 후에도, 잘 다녀왔냐고 걱정해 주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뜻깊은 일을 하고 왔다고, 수고했다고 연락해 주시는 대모님께 다시금 사랑을 받았습니 다. 어쩌면 제가 콜카타 어느 단원의 후기를 쓴 마음으로 읽지 못했던 까닭은, 그녀가 보고 느낀 것과 같은 사랑을 연습해 보지 못했기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받은 사랑을 오래 돌려 드릴 수 있는 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지난 14박 15일간, 같은 기수의 띠앗누리 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

반티에이 뿌리업, 다시 만나러 갑니다



2014년 | 양소민 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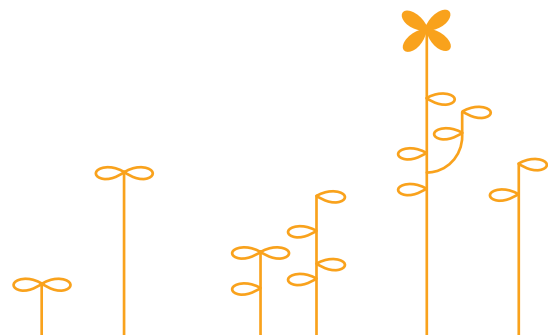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캄보디아에 있는 장애인직업훈련센터인 ‘반티에이 뿌리업’에서 일 년간 자원 활동을 한 양소민입니다. 4년 전에도 대학팀 멤버로 한 달 간 머물렀는데, 지금도 그 곳 학생들의 밝은 얼굴들, 헌신으로 학생들을 위해 일하던 선생님들과 봉사자들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때는 저도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웃고, 울며 ‘함께함’의 가치를 몸소 배우고 싶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다시 찾은 그곳은 변함없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제 업무는 후원자와 반티에이 뿌리업을 방문하거나 관심을 갖는 분들과 센터와의 소통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며 수업 진행 과정과 결과, 성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을 때, 소식지 발행을 위해 학생들과 사는 이야기를 글로 작성해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때, 또 찾아주는 방문자들과 제가 아는 것을 나눌 수 있을 때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반티에이 뿌리업은 직업기술교육 이외에도 학생들이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사회성을 회복시켜주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기억에 남는 활동은 매년 7월에 떠나는 바다 여행과 작년 처음으로 앙코르와트 국제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던 것입니다. 바다는 반티에이 뿌리업에서 3시간 정도의 가까운 거리였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바다를 보았습니다. 적게는 만 18세부터 많게는 나이 40세의 성인이 되어 처음으로 바다를 보며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던 학생들의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또 반지뢰 캠페인의 일환으로 열린 앙코르와트 국제 마

라톤 대회 때는 교장선생님, 휠체어를 탄 학생 3명, 의족을 탄 학생 2명, 또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앙코르와트 주변을 학생들과 함께 뛰면서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바라볼 때는 마음이 벅찼습니다. 앙코르와트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명소이지만 장애인들이 방문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멀기도 하지만 그곳의 많은 계단을 오르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앙코르와트에 머물며 자신의 역사와 문화에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고, 계다가 마라톤을 완주함으로써 자신감을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회에서는 말수가 적은 휠체어를 탄 여학생이 3등으로 완주하여, 참여한 모든 이들이 단상위에서 상을 받는 그녀를 위해 한마음으로 박수를 보냈던 것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반티에이 뿌리업에서 일 년을 꽉 채우고 저는 다시 한 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주 후에는 일 년간 더 머물기 위해 비행기를 탈 예정입니다. 반티에이 뿌리업과 함께 할 또 다른 시간! 더 많이 웃고, 울며 꼭 빠져 지내다 오고 싶습니다. ㊦



내 카드의 포인트만 나눠도 이웃은 미소짓습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가 행복한 나눔
포인트 Give

후원금으로, 장기기증으로, 재능으로, 혈액으로...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무엇이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 같은 시기일수록 개개인이 베풀 작은 정성은 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자가 가진 따뜻한 마음의 온기를 전할 수 있는 아주 쉽고 간편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카드사용으로 생기는 포인트로 기부 신한카드 아름인 포인트 기부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지난 2006년부터 시작한 '신한카드 아름인 포인트 기부'.

조금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나, 포인트 기부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쌓이는 포인트를 기부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한 신한카드는 그동안 포인트에 무관심하거나 혹은 포인트를 가지고는 있지만 마땅히 사용할 곳을 찾지 못한 소비자들을 위해 직접 어려운 이웃을 선정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포인트 기부는 신한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한카드 포인트 기부 공식사이트인 '아름인(arumin.shinhancard.com)'에서 원하는 기부처를 직접 선택, 간단하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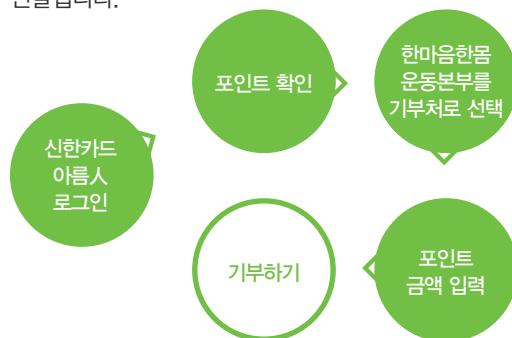
사람들이 실제 돈을 지출하지 않고도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기부 방식

큰 금액은 아니지만 포인트를 이용한 작은 나눔으로 기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포인트 기부의 장점입니다. 앞선 정보기술로 일상의 소비생활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기부문화로 이어가고 있는 신한카드 아름인 포인트 기부!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 방법

[참여방법 01] 포인트로 기부 참여하기

1포인트는 1원으로 환산되어 해당 기부처에 현금으로 전달됩니다.



[참여방법 02] 정기기부 참여하기

정기기부는 기부하실 포인트(금액)를 입력하시고 기부일자를 선택하시면 매월 해당일자에 포인트(카드결제)로 기부되며, 해당 포인트(금액)가 자동 차감(청구)됩니다.

- 카드 포인트가 없거나 모자랄 경우 카드 결제를 통해 기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기부전용카드인 아릅다운카드를 이용하시고 기부에 참여하여 아릅 포인트를 기부하거나 카드결제를 통해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02.727.2285

도움 받았던 분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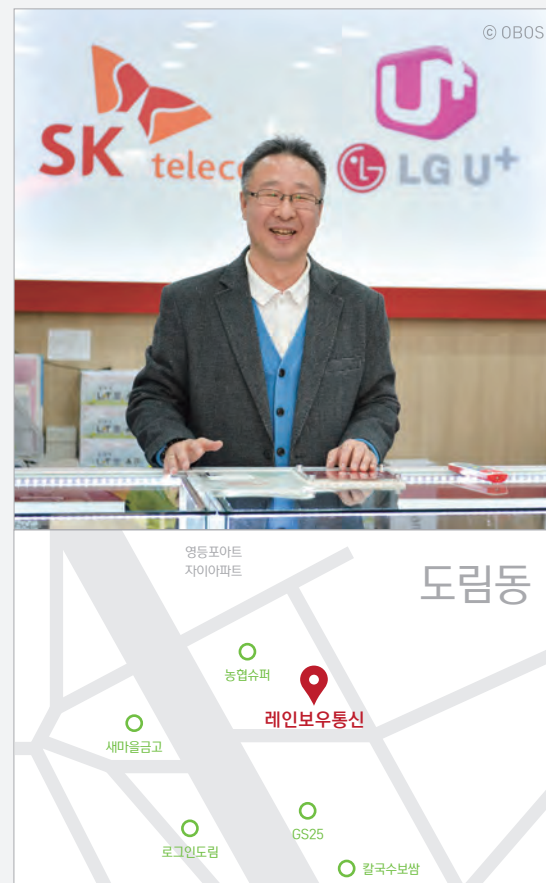
나눔가게·기업은 본부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펼치는 특별기부 사업에 동참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본부에 예비 나눔가게·기업으로 등록한 뒤 1년 이상 정기적으로 후원해주시면 나눔가게·기업으로 선정됩니다. 나눔가게·기업으로 선정되면 벽에 부착할 수 있는 나눔가게·기업 현판을 보내드리고 정기적으로 모아주신 기부금은 지구촌 빈곤 퇴치와 긴급 구호,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와 자살 예방 사업 지원 등 본부의 다양한 생명·나눔 운동에 지원합니다. ※문의: 02.727.2263

나눔가게 14호점 레인보우통신 도림점

서울대교구 도림동성당에 다니고 계시는 레인보우통신 김형률(안드레아) 대표님은, 지난 2012년 본부에서 나눔가게·기업 캠페인을 시작할 때부터 참여해 올해로 4년째 나눔가게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매장을 옮기면서 문 앞에 붙여놓았던 나눔가게 현판이 망가져, 다시 보내달라고 전화를 주실 정도로 나눔 활동에 속 깊은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처음 나눔가게에 참여하신 계기는 20여년의 오랜 냉담 후 다시 미사를 봉헌하기 시작하고 1년이 지났을 즈음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잘못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또, 사업에 실패하고 힘들었던 시절에 도움을 주었던 많은 분들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조금씩이나마 나누고자 나눔가게에 신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경기도 좋지 않아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나누는 것에 의미를 두고 참여하고 있다며, 많은 금액을 후원해주시지 못해 죄송하다고 마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나눔가게·나눔기업
레인보우통신

대표 | 김형률 안드레아 / 운영시간 | 평일 09:30~22:00, 주말 및 일요일 10:00~20:00 (4주주일 휴무)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354-8 1층 (도림동) / 전화 | 02.6397.5001



김리우 올리안나

송하연

박정연 젤투르다

오세인 라파엘라, 오다인 안나

김준서 라파엘

유요린 마리아피아

권경연 안드레아

2015년도 봄호 생애첫기부 & 기념일기부

생애첫기부

Remington Mid-eum Sean 2012.12.21생 父 Remington Mark 母 박현경 강연서 2014.01.06생 父 강석천 母 백승연 강윤우 바오로 2014.01.17생 父 강영관 母 김민현 강진주 2012.02.25생 父 강남욱 母 김현선 강채린 2014.01.25생 父 강덕용 母 박진숙 고민서 2014.01.26생 父 고성철 母 이경미 고태호 레오 2014.11.10생 父 고정환 母 이예리 고휘 2014.01.20생 父 고정진 母 한진민 구선우 2014.11.05생 父 구자민 母 박윤하 권순호 다니엘 2014.03.05생 父 권경근 母 김은혜 권순호 2013.06.13생 父 권기원 母 임영민 권예진 엘리사벳 2014.02.12생 父 권병선 母 원화선 권희진 클라라 2010.07.24생 父 권복진 母 안정현 김가현 마카엘라 2008.12.03생 父 김종민 母 노미리 김경민 2013.12.29생 父 김진오 母 이하나 김규량 2014.10.24생 父 김광모 母 김나루 김나루 2014.02.06생 父 김도현 母 노경선 김대웅 치릴로 2004.02.15생 父 김기태 母 최서은 김도연 2014.01.30생 父 김만기 母 이지현 김동건 2014.10.19생 父 김세환 母 김경화 김동은 프란치스코 2008.12.10생 父 김진오 母 진은정 김동현 대진 안드레아 2003.10.03생 父 김진오 母 진은정 김리우 올리안나 2011.02.16생 父 김현수 母 임세정 김민경 2014.09.30생 父 김영주 母 추현정 김민준 프란치스코 2014.02.06생 父 김호진 母 박주형 김보민 2014.01.07생 父 김영권 母 이현아 김사랑 (태명) 父 김대중 母 조기영 김새봄 이사벨라 2014.02.17생 父 김도형 母 최선아 김서는 마르가리타 2014.10.15생 父 김남호 母 오해순 김성지 페르난도 2014.05.30생 父 김성형 母 김영옥 김세연 임마누엘 2013.04.25생 父 김진형 母 김혜선 김승현 스텔라 2014.03.20생 父 김동훈 母 유나리 김승후 2014.03.30생 父 김대현 母 김미애 김시연 스테파노 2013.12.25생 父 김성섭 母 신화진 김아정 2005.02.10생 父 김우상 母 강영지 김연재 안젤라 2013.04.19생 父 김재동 母 김주연 김영현 헬리나 2010.10.16생 父 김용훈 母 유나리 김유나 2014.02.17생 父 김환조 母 조기정 김은찬 김재윤 프란치스코 2014.01.24생 父 김대희 母 조예림 김재은 아고보 2013.12.14생 父 김대현 母 김태정 김재희 요한 2013.12.14생 父 김대현 母 김태정 김정원 루도비코 2014.11.09생 父 김인호 母 전경화 김주현 다니엘 2014.03.08생 父 김희운 母 조윤신 김주현 요한 2012.02.19생 父 김중오 母 류해정 김지성 프란치스코 2014.06.16생 父 김성현 母 이지혜 김지안 2014.03.03생 父 김민우 母 한연경 김지원 2014.09.20생 父 김성락 母 박민정 김지윤 2011.02.05생 父 김준영 母 유혜선 김지환 2014.01.25생 父 김준주 母 김수정 김창재 2014.04.08생 父 김준호 母 신현숙 김채아 스텔라 2014.02.25생 父 김성일 母 전평화 김채린 리디아 2013.12.29생 父 김현순 母 김희진 김태곤 마르코 2012.11.22생 父 김용일 母 오영주 김태곤 요셉 2014.03.01생 父 김준혁 母 김수영 김태연 2014.03.31생 父 김재현 母 윤안나 김태은 스텔라 2014.01.30생 父 김성훈 母 김성연 김하은 노엘라 2014.03.28생 父 김승기 母 이시안 김한빛 2014.02.26생 父 김동현 母 이선정 김현서 요한 2013.09.07생 父 김민수 母 이세진 김호연 프란치스코 2014.04.05생 父 김재균 母 정예경 김희태 2014.01.14생 父 김일수 母 김고우나 남경민 2006.02.15생 父 남영욱 母 황수연 남기웅 라파엘 2013.11.12생 父 남준우 母 윤소연 남여준 프란치스코 2013.10.19생 父 남현욱 母 오유미 남예현 2014.01.10생 父 남기혁 母 김예진 노혜원 2014.01.18생 父 노석민 母 방시복 단지웅 2013.11.11생 父 단상순 母 김은선 박경륜 2014.02.25생 父 박대훈 母 황인미 박진아 베로니카 2014.05.16생 父 박용래 母 조유미 박시원 헬레나 2013.11.22생 父 박민우 母 백일원 박여우 클로리아 2014.02.19생 父 박용길 母 오재숙 박은준 마카엘 2014.01.20생 父 박우람 母 이혜정 박아수 2013.11.10생 父 박종훈 母 이서원 박지현 소피아 2014.09.17생 父 박봉곤 母 손영태 박루름 노엘라 2014.11.28생 父 박기원 母 김유정 박하린 2014.02.11생 父 박성용 母 박윤진 박하은 2014.01.23생 父 박재상 母 이현주 박하준 2011.07.12생 父 박성용 母 박윤진 박효주 호주아네스 2014.02.12생 父 박성민 母 김혜영 배범준 2014.09.18생 父 배병규 母 김윤미 박승준 라파엘 2013.01.03생 父 백원강 母 이자혜 백용하 2014.11.14생 父 백인호 母 최경심 백은실 아네스 2014.01.10생 父 백승민 母 한지혜 백준열 아우구스티노 2013.08.21생 父 백익환 母 진진경 변수민 루시아 2013.04.26생 父 변영우 母 오수연 서도연 소하데데사 2013.10.01생 父 서정주 母 이수진 석유리 2014.03.08생 父 석영후 母 김연정 설가현 2006.07.11생 父 설동현 母 박해정 설주연 2003.10.22생 父 설동현 母 박해정 손유민 엘비아 2006.03.08생 父 손태홍 母 최승희 손이영 힐데가르트 2013.11.22생 父 손재현 母 이경은 송아운 이레나 2014.01.28생 父 송혁재 母 김태원 송이재 테오도로 2013.12.22생 父 송진우 母 유지애 신윤하 2014.09.11생 父 신상호 母 민지희 심규민 2014.02.14생 父 심영보 母 민성은 안서윤 아네스 2014.01.24생 父 안영진 母 김경진 안종호 비오 2013.02.25생 父 안경찬 母 김유경 양선우 2014.01.21생 父 양동훈 母 이민정 유서현 스텔라 2014.02.08생 父 유우중 母 손영아 유승우 바오로 2008.09.16생 父 유재형 母 배효진 유정우 베드로 2013.02.27생 父 유재형 母 배효진 유태운 페트릭 2014.03.15생 父 유위성 母 장영준 윤종수 라파엘 2003.01.18생 父 윤영기 母 황지원 윤지원 2013.01.27생 父 윤순경 母 박신애 이다겸 2014.02.04생 父 이상진 母 박미주 이도윤 라파엘 2014.01.08생 父 이승훈 母 조선영 이도윤 클레멘스 2012.11.09생 父 이상섭 母 강경애 이동현 2013.01.11생 父 이경한 母 신혜선 이리원 2014.05.14생 父 이민우 母 허윤선 이별 2014.03.12생 父 이승목 母 최정화 이서준 2014.01.17생 父 이주희 母 장윤희 이수하 2014.10.07생 父 이아상준 母 김희경 이예린 2014.02.05생 父 이예선 母 이정민 이우성 레오 2014.01.08생 父 이승호 母 이윤서 이우승 디오니시오 2002.12.26생 父 이준혁 母 김현주 이우만 2014.09.19생 父 이창근 母 장지연 이은지 2014.01.03생 父 이기건 母 오유미 이재윤 2014.02.28생 父 이국희 母 차지수 이형민 사도요한 2014.03.07생 父 이형화 母 류민경 이혜준 마리아나나 2014.10.03생 父 이인원 母 이영미 임아린 레지나 2013.04.26생 父 임지훈 母 신예림 임지유 2014.03.07생 父 임양규 母 권보혜 임채원 바오로 2012.02.21생 父 임종문 母 윤효진 장새봄 2014.03.03생 父 장태영 母 홍지수 장서우 2014.02.16생 父 장성욱 母 양복순 장선형 2014.01.03생 父 장진용 母 조세희 장이안 요한나 2014.02.03생 父 장유상 母 최선영 장하은 2014.01.13생 父 장동식 母 임미영 전효일 마리스텔라 2010.02.22생 父 전훈 母 김유경 전효주 메리엔젤 2007.08.17생 父 전훈 母 김유경 정세준 요한 2010.12.13생 父 정병만 정연아 2014.02.25생 父 정대훈 母 김은선 정연우 2014.01.21생 父 정영숙 母 신경진 정에서 2014.01.28생 父 정동욱 母 신진희 정예운 루치아 2014.12.12생 父 정진욱 母 이미호 정유찬 요한보스코 2013.07.17생 父 정준준 母 이예은 정윤아 2014.03.07생 父 정광호 母 박지영 정자아 노엘라 2013.12.19생 父 정용민 母 홍은정 정하은 클라라 2013.11.11생 父 정영기 母 김유리 정희준 프란치스코 2012.05.09생 父 정병만 조사랑 (태명) 父 조태행 母 진수연 조수아 리디아 2009.10.19생 父 조현준 母 김지선 조예나 2003.01.15생 父 조영상 母 이가은 조현재 토마스 이쿠나스 2014.02.25생 父 조정호 母 이세라 조윤재 오엘 2013.12.19생 父 조현준 母 김지선 주은하 2014.02.17생 父 주영근 母 윤미연 차수연 1997.03.03생 父 차창문 母 오민영 총총이 (태명) 父 이정렬 母 진선희 최도모미 (태명) 父 최희동 母 최치나 최백을 2013.12.16생 父 최생기 母 김경자 최베드로 아가친사 母 이장숙 막달레나 최스테파노 아가친사 母 이장숙 막달레나 최아네스 아가친사 母 이장숙 막달레나 최안나 아가친사 母 이장숙 막달레나 최사아 2014.03.22생 父 최재균 母 이윤희 최성은 2014.01.13생 父 최희송 母 이수현 최수영 다니엘 2014.05.15생 父 최진우

母 이가은 최수영 2013.11.06생 父 최정준 母 유진아 최시윤 프란치스코 2014.01.17생 父 최재형 母 김선경 최정민 베로니카 2014.02.19생 父 최민석 母 김수영 최현호 레오 2014.11.05생 父 최영준 母 문승희 한민재 프란치스코 2014.02.09생 父 한희범 母 김지은 한현서 2012.01.01생 父 함진우 母 이보미 허가은 2013.11.23생 父 허훈 母 이희경 허민술 엘리사벳 2014.01.05생 父 허남현 母 김보령 홍준서 2014.11.13생 父 홍승민 母 전미선 홍현준 사도요한 2013.10.28생 父 홍석경 母 김지선

두번째 기부

강건우 2013.01.11생 父 강성민 母 김고운 강사우 2013.01.11생 父 강성민 母 김고운 관승오 요한 마리아 비안네 2013.12.08생 父 권영우 母 김지현 김세연 임마누엘 2013.04.25생 父 김진형 母 김희선 김수현 2014.02.14생 父 김지용 母 전연희 김요한 세례자 요한 2007.06.18생 父 김간수 母 백미영 김태곤 2014.01.06생 父 김진 母 이채형 김해은 세례자 요한 2013.01.21생 父 김경운 母 박은선 류현우 2012.03.08생 父 류만형 母 김소연 류흥인 베드로 1999.10.03생 父 박수빈 엘리사벳 2002.07.02생 父 박현 母 임영 박수빈 클라우디아 2012.11.01생 父 박해은 母 김지연 박수원 레오 2004.06.09생 父 박현 母 임영 박윤솔 2013.01.28생 父 박대민 母 정경화 박정현 젤투르다 2014.01.20생 父 박진준 母 이소현 박준현 디모테오 2012.01.31생 父 박준연 母 김정은 신소윤 2013.02.22생 父 신웅석 母 이미정 심우형 다니엘 2009.05.15생 父 심재윤 母 이경정 심을 2013.08.14생 父 심현보 母 김지은 오다인 안나 2012.09.17생 父 오상무 母 하미선 오세인 라파엘라 2010.01.11생 父 오상무 母 하미선 오은수 2013.12.29생 父 오재필 母 김현정 이서준 2014.02.05생 父 이광운 母 이미연 이채원 에스텔 2014.02.17생 父 이진호 母 정희정 장민서 소피아 2013.09.09생 父 장성용 母 오영숙 장윤 2013.08.20생 父 장승환 母 주소윤 전효성 세례자 요한 2012.09.03생 父 전훈 母 김유경 정가현 2012.01.13생 父 정규진 母 이인실 정시은 요한 2014.01.21생 父 정대열 母 윤슬기 정영서 릴리안 2013.12.06생 父 정덕화 母 이은진 정영우 2012.01.28생 父 정재광 母 홍지수 정이현 2013.11.25생 父 정진석 母 이인화 조민재 마카엘 2013.01.14생 父 조준일 母 진민경 주민재 도나토 2012.10.22생 父 주영조 母 김혜진 지서윤 2013.02.11생 父 지대현 母 이기광 한서은 세라피나 2014.10.02생 父 한동규 母 송영은 한석현 알렉산데르 2013.08.11생 父 한현선 母 서가원 한스텔라 스텔라 2012.08.20생 父 파재환 母 한소진 한정현 대진 안드레아 2011.08.20생 父 한현선 母 서가원 허상범 루가 2014.01.11생 父 허대영 母 김정숙

세번째 기부

구민주 그라시아 2007.11.9생 父 구성관 母 박혜은 김서진 마리아 2012.08.14생 父 김성봉 母 윤려진 김준서 라파엘 2012.02.18생 父 김종문 母 정희정 김지안 잔다르크 2012.01.29생 父 김태환 母 박혜영 민세윤 2013.02.13생 父 민정재 母 이선영 오승우 2012.02.15생 父 오세훈 母 송지혜 유진민 2010.02.25생 父 유형석 母 이지원 유예성 다니엘 2011.11.23생 父 유력준 母 윤미영 유예찬 대진 안드레아 2009.07.14생 父 유력준 母 윤미영 유요린 마리아피아 2012.01.30생 父 유태곤 母 박소정 이승우 콘스탄티노 2014.04.12생 父 이종수 母 박우정 이치후 2012.01.31생 父 이준수 母 김혜진 임지유 아네스 2012.01.31생 父 임경권 母 이정선 임지호 발렌티노 2008.02.13생 父 임성익 母 김미리 최다인 로사 2010.03.06생 父 최상규 母 이승은 최지인 2012.01.29생 父 최상규 母 이승은 황정원 다비드 2004.12.29생 父 황상욱 母 김현수

네번째 기부

권경현 안드레아 2011.04.19생 父 권오준 母 임민정 권나운 데레사 2011.12.15생 父 권광호 母 김선영 김동훈 안토니오 2011.01.17생 父 김현욱 母 한주희 김영선 2010.07.24생 父 김병욱 母 이수희 김영준 2010.07.24생 父 김병욱 母 이수희 이슬아 캐서린 2010.12.10생 父 이병동 母 김혜원 장준하 니콜라스 2007.12.27생 父 장성용 母 오영숙 장현서 카트린 2010.06.09생 父 장성용 母 오영숙 천수정 로사 2013.04.06생 父 천정우 母 강재민 최다인 로사 2010.03.06생 父 최상규 母 이승은

다섯번째 기부

윤정훈 안셀모 2011.02.08생 父 윤용덕 母 제민영 박성민 2010.02.10생 父 박동현 母 정미영

여섯번째 기부

정성하 스테파노 2008.12.25생 父 정찬호 母 조은모 천승민 베드로 다미아노 2011.02.21생 父 천정우 母 강재민

기념일 기부

건안상사 기념 기부 | 황호건 요한 1961.03.12생 생일 기부 | 김은주 1981.01.24생 김인숙 매리텔라 1988.02.26생 김정현 마르첼로 1980.01.06생 오윤경 아네스 1975.01.28생 윤지원 아네스 1986.03.08생 정명화 1988.01.12생 입학 기념 기부 | 김수연 마카엘라 1995.11.01생 김준서 안드레아 1999.05.04생 이영수 | 이한희 세라피나 / 장근국 라파엘 / 황혜림 소피아 1996.03.20생 취업 기념 | 구하정 요한나 1989.03.31생 크리스마스 기념 기부 | 김정현 마르첼로 & 정혜진 도미니카 / 백승용 요셉 & 김지현 지다 아름다운 부부의 기부 | 고재인 시몬 & 김양희 세실리아 결혼기념일 2004.01.10 김영현 & 박정선 빅토리아 결혼기념일 2014.01.04 박형규 & 임보은 결혼 2015.03.07 오종선 & 김향진 클라라 결혼기념일 2014.12.20 이창호 토마 & 김미영 안나 결혼기념일 2013.03.01 정한국 & 조유진 마카엘라 결혼기념일 2009.02.21 조광호 & 이정은 올리안나 결혼기념일 2013.12.14 최지수 마르첼로 & 권애민 젤마 결혼기념일 2010.01.09 멋진 커플 기부 | 정광현 베드로 & 박숙정 다니엘라 감사기부 허일희 루가 & 박경순 안젤라 600일 기념 황일희 안드레아 & 김혜민 루치아 2001년 기념 감사 기부 | 김성 도나토 1971.01.09생 기일 기부 | 고태영 분시아노 멋진 팬들의 기부 | EXO 세훈 생일기념 1994.04.12생 박신혜 생일기념 1990.02.18생 비투비 데뷔3주년기념 2012.03.21 비투비 임현식 생일기념 1992.03.07생 신하 데뷔7주년기념 1998.03.24

자살예방 강사과정 보수교육 실시



지난 2월 4일 명동가톨릭회관에서 QPR 지도자과정 수료자, ASIST교육 수료자, 전화상담봉사자 42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활동가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동기강화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자살예방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2015년 1월부터 2개월 동안, 전국 교구 가톨릭 신자, 성직자, 수도자 1,120명을 대상으로 자살에 대한 인식, 지식 및 도움관련 행동에 대해 파악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지구시민교육프로그램 띠앗누리 19기



지구시민교육 프로그램 띠앗누리 19기가 지난 2월 13일 해단식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마무리하고 지구시민으로서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띠앗누리 19기는 빈곤, 인권과 평화, 환경, 지역공동체를 주제로 4차례의 배움터를 거쳐 1/27(화)~2/10(화)까지, 14박 15일 동안 캄보디아 감봉고 마을에서 현지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월드프렌즈 NGO봉사단 파견



본부는 전 지구적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와 함께 월드프렌즈 NGO봉사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정다운(행정/홍보)단원이 캄보디아 JSC(예수회 캄보디아 봉사단)으로 파견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작년에 파견되었던 양소민(신문방송)단원은 올해도 캄보디아 반티프리업 장애인 기술학교에 재 파견되었습니다. 두 단원들이 그 지역 사람들과의 교류로 배움을 얻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KOICA 몽골, 캄보디아 현장방문



본부는 지난 1월 KOICA(한국국제협력단)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캄보디아와 몽골 사업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본부는 현지에서 활동하는 JSC(Jesuit Service Cambodia)와 몽골 메리워드 청소년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빈곤을 없애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2015 희망의 씨앗심기 생명나눔 캠페인



지난 2월 14일~15일 고 김수환 추기경님의 선종 6주기를 맞아 '2015 희망의 씨앗심기' 명동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명동성당 들머리와 앞마당에서 실시된 캠페인에서는 장기기증에 대한 아름다운 사연과 홍보 포스터를 전시하여 시민들과 신자들에게 생명나눔의 숭고함과 소중함을 널리 알렸습니다. 캠페인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편 본부는 전 교구와 함께 사순시기부터 '가톨릭장기기증전국네트워크'를 통해 범국민 생명나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5. 1 ~ 3

치료비 지원사업

단위 만 원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성명	병명	병원	진료비
서○○(여/10세)	황문근육종	국립암센터	900
코○○○○○○○(여/0세)	호출곤란, 선천성 후두연화증	아주대병원	1,000
고○○(남/6세)	급성림프모구성 백혈병	서울대학교병원	1,000
김○○(남/59세)	간세포암(간이식)	신촌세브란스병원	900
김○○(남/34세)	알콜성 간경변(간이식)	국제성모병원	1,000
황○○(여/41세)	간경화(간이식)	인천성모병원	1,000

성명	병명	병원	진료비
정○○(남/39세)	시신경척수염	국립암센터	700
김○○(남/62세)	간세포암	한림대성심병원	300
이○○(여/57세)	치근낭	부천성모병원	500
유○○(여/38세)	시신경척수염	국립암센터	800
채○○(남/49세)	간세포암	한림대성심병원	300
김○○(여/25세)	자궁경부암	한림대성심병원	350
정○○(남/49세)	상세불명 세포형의 급성백혈병	중앙대학교병원	650



희망의 씨앗 심기
생명나눔
제가 하겠습니다

풀칠하는 곳

KONOS

등록번호

장기기증희망자 등록 신청서

나는 이웃에게 새 생명을 주고자 아무런 대가 없이 나의 장기를 기증하고자 합니다.

이름

세례명

본당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 장기기증 등록증 발송을 위해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이동전화

정보수신여부

☐ 전자우편

☐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 우편물

☐ 이메일

기증형태

☐ 뇌사 시 장기 등 기증

☐ 안구(각막) 기증

*종목 선택 가능

윤전면허증에 장기기기증희망자라는 사실을 표시하기를 원하십니까?

☐ 예

☐ 아니요

* 윤전면허증 신규발급, 갱신, 재발급 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장기기증이식에관한법률” 제 15조 제 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7조에 따라 한마음한몸장기기증센터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름

* 반드시 자필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

법정대리인의 동의 | 이름

관계

주민등록번호

*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① 신청인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하는 사람이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신청인이 정신질환자나 지적장애인인 경우: 정신과 전문의가 본인 동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소견서 1부

하루 100원 모으기 자동이체 출금동의서

이름

세례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후원금액

☐ 3,000원

☐ 10,000원

☐ 30,000원

☐ 기타

원

출금일자

☐ 매월 5일

☐ 매월 20일

* 출금통장에 '한마음한몸'이라 표시되며, 매달 약정일에 자동 출금됩니다. 연말 소득용 납입영수증 발급됩니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계좌주명

계좌주 주민등록번호

계좌주

* 통장의 인감(서명)으로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명

* 계좌주 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및 교육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① 수집 및 이용목적: 자동이체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② 수집항목: [개인정보] 성명, 전화번호, 주소, 계좌정보 / [교육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③ 보유 및 이용기간: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자동이체 이용 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④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및 교육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신청 절차에 의해 반드시 개인정보 및 교육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셔야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집을 원치 않으실 경우에는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 동의함

☐ 동의안함

교육식별정보

☐ 동의함

☐ 동의안함

본인은 자동이체거래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금융거래정보(거래금융기관명, 영업점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상기 거래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것과 위 정보 제공사실을 명의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약관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름

* 반드시 자필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

풀칠하는 곳

소중한 100원, 큰 나눔의 씨앗입니다



하루 100원 모으기 운동 | 100원이라는 작은 씨앗으로 사람과 나눔이라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I DO! 제가 하겠습니다.

One-Body One-Spirit MAGAZINE / vol. 25 / spring / www.obos.or.kr

‘행복·희망의 씨앗’을 심는 2015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점점 팍팍해지고 있다고,

살기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꿈꿀 수 있냐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나눔을 실천하며 다른 이들에게

‘행복·희망의 씨앗’이 되어 보는 건 어떨까요.



희망의씨앗



행복의씨앗

우 편 엽 서

보내는사람

□	□	□	-	□	□	□
---	---	---	---	---	---	---



100-809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413호

T 02.774.3488 F 02.776.7879 H www.obos.or.kr